

“본 사례집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여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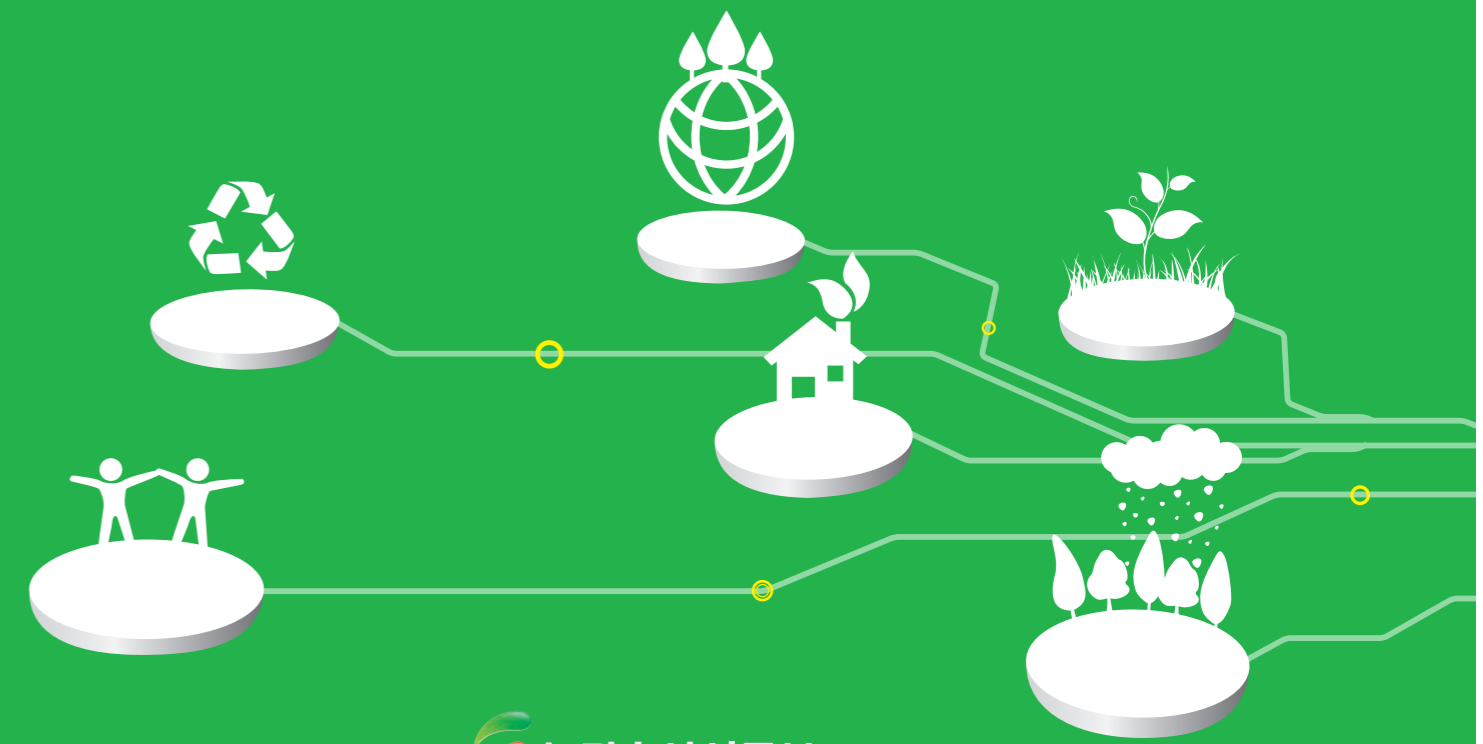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914-01



Green growth! Green leader!

농림수산물부! leader!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



농림수산물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reen growth! Green leader!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

본 사례집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여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Green growth! Green leader!



·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 발행일 : 2011년 10월

· 발간등록번호 : 11-1541000-000914-01 · 디자인 인쇄 : 아르빛 02)503-3223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로 1번지) · TEL: 02)500-2439

2011 녹색성장 성과사례집에 실린 글과 사진의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있으며 허락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Green
growth! Green
농림수산식품부! leader!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성과사례집

농림
수산
저탄소
녹색
성장



GREEN GROWTH



I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1. 농림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2. 농림수산식품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OECD)의 평가

II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1. 녹색식생활운동 확산
2. 도시농업 활성화
3.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치유 활성화

III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녹색공간으로 리모델링

1. 저수지 독 높이기
2. 바다숲 조성
3.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4.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등 녹색 산림 네트워크 구축

IV 탄소제로에 도전한다!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1.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2. 친환경 농산업 육성
3.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활성화
4. 어선 LED 보급 확대
5.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V 국가 신성장동력, 농식품분야에서 찾는다!

1.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2. 식물공장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3. 종자·생명산업 육성 기반 마련
4. 녹색성장의 핵심, 녹색R&D 활성화 추진

VI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

1. 농업 온실가스 국제 연구 연맹(GRA) 가입
2.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3. 제10차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 성공적 개최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농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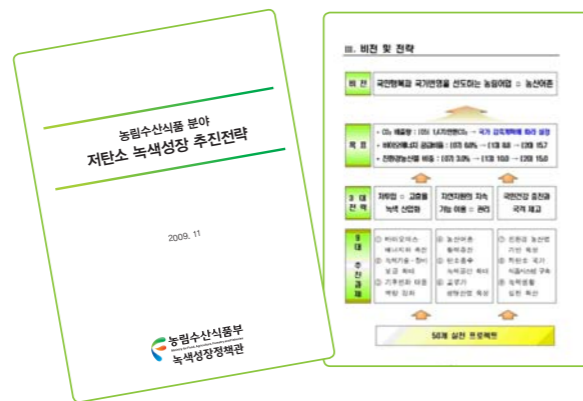
- 1.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 2.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OECD)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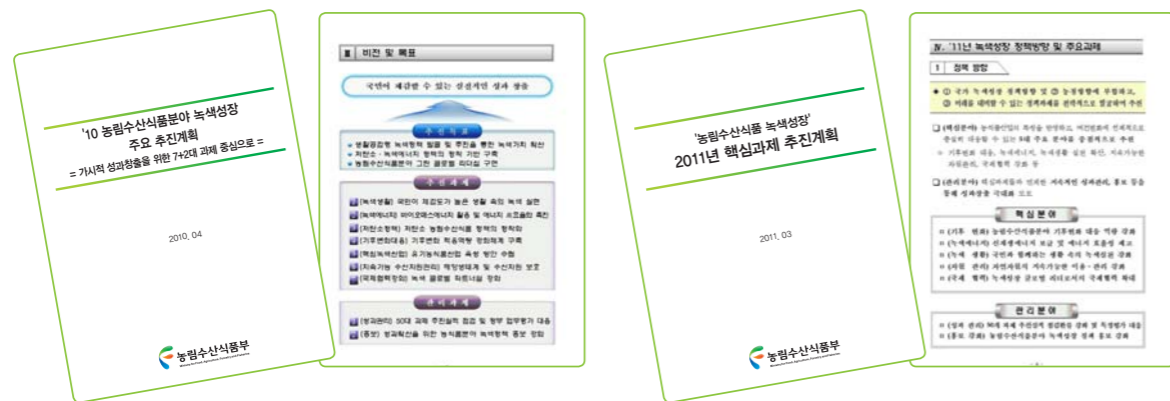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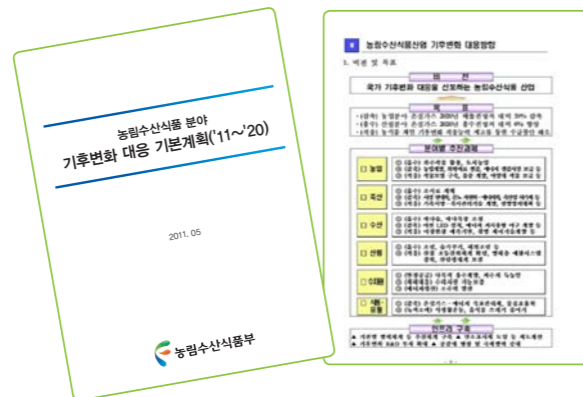
- 농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의 마스터플랜인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09,11월).



- 전부처 최초로 연도별 핵심과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10년, '11년).



- 농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전부처 최초로 '농림수산물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11~'20)'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11.5월).



농림수산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OECD)의 평가

OECD 녹색성장 보고서에 우수사례로 기재되다.



traditional farming practices and entail employment and distributional effects. The development of new green services, technologies and industries offers opportunities to the agricultural sector but also requires careful management of the potential job losses from more environmentally-damaging activities. Structural adjustment measures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green growth may include temporary income support, rural diversification, and training. Addressing these challenges will hav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s, particularly greater co-ordination between agriculture and environment ministries in order to identify synergies and trade-offs. **One example of an approach to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 Korea is shown in Box 4.5.**

Box 4.5. Green growth policies in Korea

Korea has been a pioneer in implementing green growth through policies in all major sectors of their economy. In the food and agricultural sector, notable examples include reduction in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energy savings, promotion of organic agriculture, and expansion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area of agricultural green technology.

In 2010, Korean farmers reduced the use of fertilizers by 8.8% between 2009 and 2010. This was achieved through better utilization of bulk blending fertilizers matched to soi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energy savings (and GHG emissions reductions) can be achieved by introducing geothermal heating system in greenhouses. The government aims to increase geothermal heating to an area covering 13 000 ha (about 1% of total agricultural land) by 2020 thus reducing oil consumption by 1.14 million kl, thereby reducing GHG emissions by 7.9 million tons of CO₂-equivalents (about 4% reduction of GHGs emiss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as designated organic agriculture and food industries as core green industries and has outlined specific measures to develop these activities. The Ministry has also established a regular policy review process as demonstrated by the 3rd Five Year Plan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Industry announced in November 2010.

In rural areas, the government has been managing 27 regional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enterprises of 1 000 ha since 2010. In addition, the Ministry has increased the financial investment on green technology in its overall R&D budget o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to WON 251.9 billion (USD 223 million) by 2010 (one third of the total green growth R&D investment in agriculture).

The Ministry expects many jobs (about 5% of total employment in agriculture and food) will be created through significant investments (KRW 11 71.1 billion, USD 1.04 billion) promoting green growth in agriculture and fisheries.

Source: Kim et al. (2010), Korea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10).

- 녹색성장 추진 사례로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 유기농식품 산업 육성, 녹색기술 분야 재정투자 확대가 있다.
- 대한민국 농림수산물부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에 8.8%의 비료 투입량 감소 및 2,800억원의 비료 투입비 절감을 이루었다.
- 대규모·자동화 온실 87ha에 지열난방을 보급하여 72.6%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녹색산업으로 '유기농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11~2015)을 수립하는 등 확고한 정책기반을 조성하였다.
- 2010년 농림수산물부 예산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 활용에 771억,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에 2,945억 등 농림어업부문의 녹색성장에 총 11,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32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ii

1. 녹색식생활운동 확산
2. 도시농업 활성화
3.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치유 활성화





녹색식생활운동 확산

친환경 농식품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균형잡힌 식생활로 국민건강을 증진한다.

추진배경

- 식품의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국민의 영양학적 건강증진과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10. 4),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09. 11)
- 교육기관·체험공간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충 하였습니다.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과 농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 체험공간 지정을 확대하였습니다.
 - 지자체 단위로 지역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 '지역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다각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정식 생활수첩 보급, 공익광고 제작, 학술행사,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학교·방과후 교실·농어촌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등을 통한 민간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푸드마일리지 정보제공,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과사례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녹색 식생활 실천 운동의 확산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기여,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 환경 식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활속에서 녹색 식생활을 실천합니다.
- 건강 전통식생활을 바탕으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배려 농어촌 체험, 조리 체험 등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해 나갑니다.

밥상혁명 꿈꾸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황민영 대표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

"음식은 사람 인신과 좋은 영(魂)이 합쳐진 한자로 '사람을 주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와 못 고친다고 했어요. 그만큼 먹 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먹는 것을 위해 '식문화'를 바꿀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대 초 독립 유학을 다녀왔으 며 (한국농어업인신론)의 기초로 입시제 대표이사로 퇴임한 이후 한국농 수산물농 이서, 한국농어촌사연구소-한국농업농업연구소 이사장,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농림수산정책-농어촌특별위원회(원) 위 원장 등으로 재직하여 평생 농업을 전문으로 삼아온 맞은 맞은. 그가 평생 이루고자 한 키워드는 '식문화'와 '농(農)의 개선'이다. 올바른 식문화 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제도로 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뜻을 품고 지난 2009년 12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창립했다.

잡지사 인터뷰:서울문화사 (2011년 7월 우먼센스, 에센 등)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이다."

동대문,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녹색실천 캠페인

내달 5~9일까지 실시

【동대문구】 동대문시는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5일간 전구를 돌고 4개소에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녹색실천 캠페인 행사를 전개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와 발간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가이드'를 배포하고, 아케이드 벽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적극적인 시민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건강 채소 코너를 마련해 시민들 유도를 하고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통 한식의 특성을 갖춰서 일반인과 무관한 실천을 최근 늘어나는 외식문화로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녹색실천 캠페인 (이투데이 2011년 9월 2일)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이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만화 영상 (노컷티브)

"녹색식생활 체험학교는 오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90개 초중학교 학생 1천8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5회에 걸쳐 녹색식생활 및 전통식문화에 대해 교육한다."



대한민국 녹색식생활 프로젝트 (녹색식생활 공익광고)

농식품부, 녹색 식생활 체험학교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농림수산물부는 11일 학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을 살리는 식생활 실천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녹색식생활 체험학교' 및 '녹색식생활 및 농어촌 체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색식생활 체험학교는 오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90개 초·중학교 학생 1천8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5회에 걸쳐 녹색식생활 및 전통식문화에 대해 교육한다.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사업 관련보도 (2011년5월 연합뉴스)



도시농업 활성화

도심에 농장을 조성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심속 생태계를 복원한다.

추진배경

-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는 도시환경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도시농업은 도시환경 (녹지, 공기, 수질, 생태)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최근 웰빙(참살이, 로하스) 트렌드의 확산으로 옥상농원이나 텃밭농사 등 “도시 속 농사” · “도시민의 농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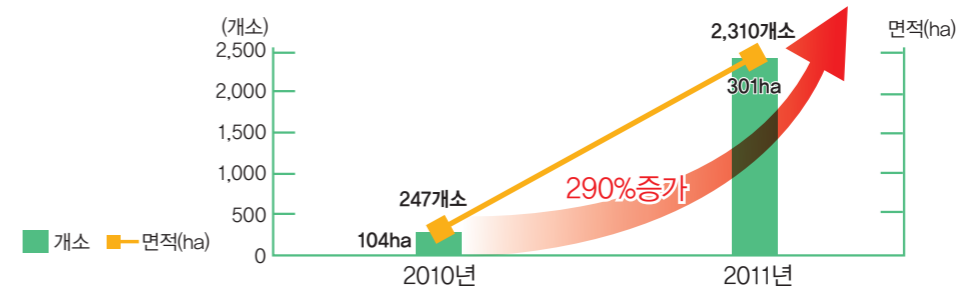
주요내용

- 옥상, 학교부지, 공공유희지 등에 도시텃밭을 (Community Garden)조성하고 있습니다.
 - '20년까지 도시텃밭 8천 개소 조성(3천ha 수준)
- 도시농업 육성법 및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하고('11년 중) 있습니다.
 - 도시농업 공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도시농업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주도의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농협, 도시농업연구회, 도시농업포럼,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을 중심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칭) GREEN-도시농업 시민운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과사례

- 도심온도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 옥상과 벽면녹화시 평균 30%의 전력사용량이 감소 됩니다.
 - 농산물 수송거리 단축으로 서울지역에서만 12천톤의 CO₂ 발생량이 감축 됩니다(도시텃밭 5,100ha 조성시).
- 건물옥상, 하천부지, 유희지 등을 농업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공간 이용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 도시텃밭은 '10년 대비 약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텃밭' 8000개 만든다

식민한 도심 주변 곳곳에서 녹색 텃밭과 주말농장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도시텃밭 주말농장 8000개를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물부는 7일 "도심에 텃밭과 주말농장을 8000개소, 총 3000ha 규모로 조성해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Green) 도시농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건물옥상, 학교부지, 공공유희지 등에 도시텃밭 7200개소(2700ha)를 조성해 녹색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0년 현재 200개소인 도시텃밭농장은 800개(300ha)로 늘리는 한편 주차장, 오피스, 농장관리사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또 인천 부평의 도시농업공원처럼 농사체험과 휴식을 함께하는 두공원을 지자체별로 1개 이상씩 조성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앙일간지 보도 (6.7일, 6.8일 경향·연합·매일경제 등 다수)



주간지 기획기사 보도 (이코노미스트 1098호, 2011년 8월 1일)

"농림수산물부는 도심에 텃밭과 주말농장을 8000개소, 총 3000ha 규모로 조성해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명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힘"

- 원예산업, 도시녹화 산업, 첨단 식물공장 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선도합니다.
 - 도시녹화 관련 국내시장 규모는 약 19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지역이나 기후조건에 상관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 연중 농산물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로 IT, BT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

농진청 발달형 '식물공장 연구동' 문 열어

기사입력 2011-03-23 17:41

농진청 발달형 '식물공장 연구동' 문 열어

IT, BT, ET, RT 등 최첨단 기술 접목한 파일럿 플랜트

(수원=연합뉴스) 강창규 기자 =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1년 365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식물공장'이 준공됐다.

식물공장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지역이나 기후조건에 상관없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듯 연중 농산물을 자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로 IT, BT 등 최첨단 기술이 접목됐다.

농출진출청은 23일 오전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달형 및 수직형 식물공장 연구동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 보도 (연합뉴스 2011년 3월 23일)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치유의 숲을 통해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추진배경

-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 산림휴양수요 전망 : (‘07) 256 → (‘12) 326백만명
 - 자연휴양림 이용수요 전망 : (‘07) 8 → (‘12) 10백만명
-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치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국민의 82%, 환자들의 79%가 산림치유 효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환자 중 77%는 장기체류 산림 치유시설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09, 한국갤럽).



주요내용

-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 인프라를 연차적으로 확충합니다.
-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 생활권 주변의 산림에는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합니다.
 - 치유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에는 장기체류형 자연치유림을 조성·운영합니다.

성과사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만성·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합니다.
 -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연간 건강보험진료비의 35%(12조원) 수준이며, 숲에서의 활동은 질환의 사전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 본격 가동!

[인터뷰:이인자, 산음자연휴양림 산림치유전문요원]
"건강하신 분이냐 또 병중에 계신 분이냐 다들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고마워하고 또 뭔가 속이 시원하다고 하면서 돌아가실 적에 보람을 느끼고 좋습니다."

산림치유는 숲이 가지고 있는 피톤치드·음이온·아름다운경관·토양·온습도·광선 등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환을 치유하는 활동입니다.

산림청은 현재 전국에 3곳 뿐인 치유의 숲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확대 조성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 본격가동 (YTN뉴스 2011년 6월 18일)

"산림치유는 숲이 가지고 있는 피톤치드·음이온·아름다운경관·토양·온습도·광선 등을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환을 치유하는 활동"

■ 산림청휴양림관리소 추진 경기 좋은 숲길 네 곳

'건강숲길' 1호 백운산자연휴양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해발 1087m 백운산 자락에 있다. 자연휴양림이 자리 잡은 풍수골은 풍의 전설이 서린 대룡소와 소룡소 외에도 크고 작은 폭포가 있고 계곡물이 넘겨 흐르고 수량이 많아 시계절 가락단위 휴양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자연휴양림 내 11km의 숲길은 2007년 대한전기연맹이 처음으로 지정된 '건강숲길'. 총반 6km까지 편안한 오프로드가 이어지다가 나머지는 내리막 경사를 유지해 남녀노소 누구나 여유 있게 숲을 즐길 수 있다.

백운산휴양림엔 '산림문화휴양관' 3동 13실(5인실)과 '솔막숙련장' 1동 2실(20인실) 2실, 회의실, 식당의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2곳, 숲 체험을 위한 대크로도, 다양한 코스의 등산로가 있다. 국립공원치악산이 약 50분 거리, 오크밸리 리조트가 30분 거리에 있다. (033)766-1063

좋은 숲길 네 곳 (MK뉴스)

자연휴양림관리소, 녹색 휴양공간 확충...산림복지 구현

NEWSIS 기사입력 2011-01-25 19:43

【대전=뉴스시스】 박희승 기자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산악형 자연휴양림에서 벗어나 해안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녹색 휴양 공간'을 확충해 산림복지 실현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는 올해 목표를 '녹색휴양 제공으로 산림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연휴양림관리소는 늘어나는 야외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키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산악형 자연휴양림에서 벗어나, 해안에 위치한 자원을 활용해 해안생태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올해 착수하기로 했다.

또 아세안 산림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녹색휴양 공간 제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의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계 실현으로 산림휴양정책 만족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녹색휴양공간확충 (NEWSIS 2011년 1월 25일)

강원도 황성 청태산 '치유의 숲' 개장

강원도 황성 청태산 일대에 숲 치료 시설인 치유의 숲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관광시설에 의료시설을 설치한 법인데 향후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위>운영관(북부지방산림청장)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료 산업과 관광산업이 함께 운영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태산 치유의 숲은 다양한 자연생태 학습장과 300명 규모 목조숙소동과 연계 운영돼 산림 치유 센터의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강원도 황성 청태산 '치유의 숲' 개장 (KBS뉴스 2011년 8월 26일)

"청태산 치유의 숲은 다양한 자연생태 학습장과 300명 규모 목조숙소동과 연계 운영돼 산림 치유센터의 모델로 기대"

뉴스포 > 지역 > 경제

산림청, 다문화가정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1-30 08:30 | 연합뉴스 2011-01-30 12:26



산림청, 다문화가정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대한산림청-연합뉴스) 농림부 기자 = 산림청이 동북아시아산림협력기구(AFACO) 운영 등을 계기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아세안 산림휴양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사진은 강원도에 조성된 인도네시아 전통가옥의 모습. 2011.1.30 seokhye@yna.co.kr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조성 (연합뉴스 2011년 1월 30일)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녹색공간으로 리모델링



1. 저수지 둑 높이기
2. 바다숲 조성
3.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4.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등 녹색 산림 네트워크 구축





저수지 뚝 높이기

수자원의 추가 확보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대처능력을 강화한다.

추진배경

- 급격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져 홍수와 가뭄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의 하천은 기후 변화에 취약합니다.
 -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대에 비해 1.4배 증가하였지만, 지난 100년간 가뭄 16회, 2년 연속 대가뭄 7회 등 주기적인 가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홍수기인 6~9월에 연 강수량의 2/3가 집중되어 저류시설에 한계가 있습니다.
- 4대강 유역 농업용 저수지의 뚝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용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 4대강 유역 113개 농업용 저수지의 뚝을 높여(평균 2.6m) 2.8억㎡의 추가용수를 확보하여, 농업 용수를 보충하고 하천 수생태계를 보존합니다.



성과사례

- 저수지 수용량을 증대시켜 부족한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 '20년 생·공·농업용수 부족량 대비 48.3%가 충족됩니다. (2.8억톤(추가확보량)/5.8억톤(부족량))

"한계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은 주변 농촌지역 소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생태복원등을 위해 추진"

4대강 뚝높이기 청원서 첫 준공식

4대강 뚝높이기 청원서 첫 준공식 (청원=연립뉴스) 황정현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저수지 뚝높이기 공사의 첫 준공식이 충북 청원군 한계저수지에서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오전 10시 20분 청원군 기덕면 한계저수지 상류부 생태공원에서 서유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사업의 서막을 알리는 준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122억원이 투입돼 저수용량을 기존 94만에서 150만으로 늘린 한계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은 주변 농촌지역 소하천의 건천화 방지와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저수지주변 생태공원 조성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도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한편 도농 교류가 활성화돼 농어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어촌 공사를 내다봤다.

준공행사 개최 (연립뉴스 2011년 6월 30일)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 대비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저수지 뚝 높이기를 통해 홍수조절 기능이 보장 되었습니다.

"저수지뚝높이기 사업은 수자원 추가 확보와 홍수량 저류를 통한 저수지 하류의 홍수피해 방지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세계일보

2011년 08월 04일 (목) 26면 오라니언

기고 물폭탄에 진가 발휘한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이 중 원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전하는 사업이다. 전국 113개 저수지의 뚝을 평균 4.5m 높여 저수용량 6.2%에서 9.0%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높여지는 2.8%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36개 저수지의 개소당 평균저수량 74천을 감안할 때, 저수지 376개를 새로 건설하는 것에비하면 양이다. 현재 충북 청원군의 한계저수지와 충남 공주시의 계룡저수지 2곳이 완공되었는데 최근의 집중호우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으로 저수용량이 100만에서 150만으로 늘어난 한계저수지의 경우 예년 같은 저수지를 넘쳐 하류로 흘렀을 때 지금은 저수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뚝 높이기 사업을 통해 종전의 140%에 달하는 수량을 확보했으며, 여전히 10%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공주시에 계룡저수지 역시 뚝 높이기 사업으로 저수용량이 341만에서 471만으로 늘어난 저수지의 경우 131%에 달하는 물을 저장했다. 그리고도 저수용에 5%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당수능력 증가는 상류 홍수량의 저류가능과 연결되어 하류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수 있다. 이제 웬만한 홍수나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비영농기에는 하천에 물을 연중 흘려보낼 수 있어 생태계 보전 및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뚝 높이기와 병행해 추진한 수변개발은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의 준설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해 저지대 농경지를 높이고, 용·배수로 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환경 개선과 함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4대강 주변의 770ha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를 평균 2.6m 높여 우량한 농경지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역시 이번 집중호우 때 그 진가가 발휘되었다. 금년 말 1400구에 대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비농사기 여의지 않았던 하천저방 인근 상습침수 농경지 700ha가 논밭으로, 사설원예, 특작 등 고부가가치 영농이 가능한 전후농경지로 재탄생된다. 이는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세계일보 2011년 8월 4일)

- 저수지 수변지역을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하여 도시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 증대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아토피 센터 자연학습관 피톤치드길 수변생태공원 등 조성 수자원 확보 주민 생태공간 창출 농경지 가치 향상 위해 최선"

16세 대표

아토피 치유·휴식·테마가 있는 산책 '명품 저수지' 만든다

농어촌공사 양양군 한남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저수지 박차

이토피센터 자연학습관 피톤치드길 수변생태공원 등 조성
저수지 높이 42m 폭 200m 길이 340m 용량 160만톤 규모
"수자원 확보 주민 생태공간 창출 농경지 가치 향상 위해 최선"

아토피 치유·휴식·테마가 있는 산책 명품저수지 만든다 (강원일보 8월 20일)

바다숲 조성

바다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위기의 바다를 희망의 바다로 바꾼다.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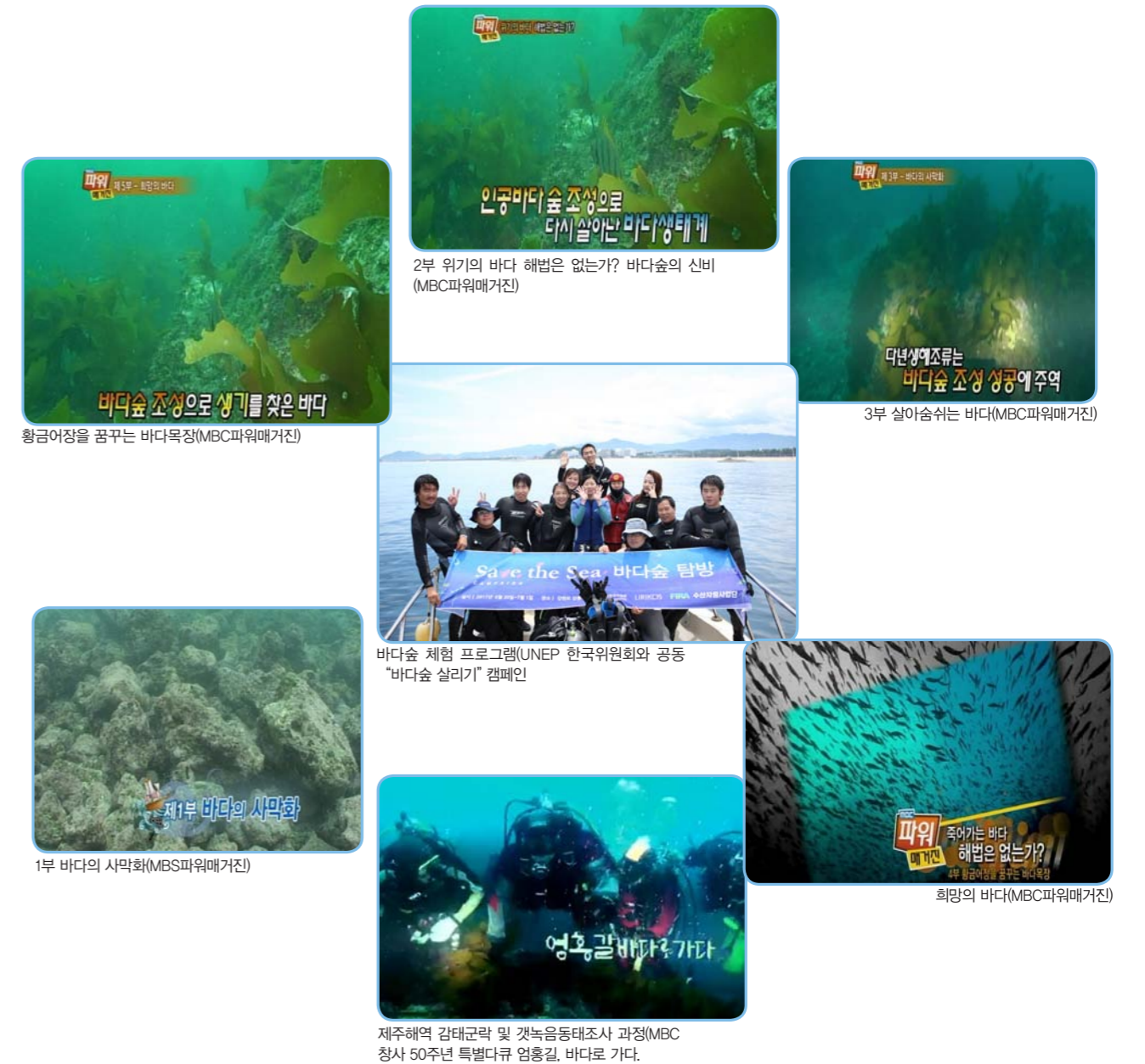
- 갯녹음 등 수중 환경오염 심화에 따라 국내연안의 수산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내연안을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 생산, 웰빙식품·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30년까지 산림녹화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숲 35,00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갯녹음 및 오염심화 해역 시범조성(1단계 : '09~15) : 7,000ha
 - 전(全) 연안 대규모 바다숲 조성(2단계 : '16~30) : 28,000ha
- '11년에는 전국 동·서·남·제주해역 연안 마을어장 12개소에 바다숲 651ha를 조성합니다.
 - 동해(양양 87, 삼척 59, 울진 76)
 - 서해(백령 등 11)
 - 남해(거문도 15, 영도 50, 통영 41)
 - 제주(서귀포 208, 제주시 104)

성과사례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이 제공되어 수산자원이 증대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가 구축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바다숲을 수중 체험 관광형으로 조성하여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웰빙식품·의약품 개발 등 해조류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수산분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바다숲을 CO₂ 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바다숲 1ha 조성시 CO₂ 고정량 : 36.7tCO₂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한국형 농촌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의 표준모델을 정립한다.

주요내용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덕암마을에 에너지 자립녹색마을을 조성합니다.
 - 태양광, 펌프,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 주택에서 손실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절약 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한 녹색마을 센터를 건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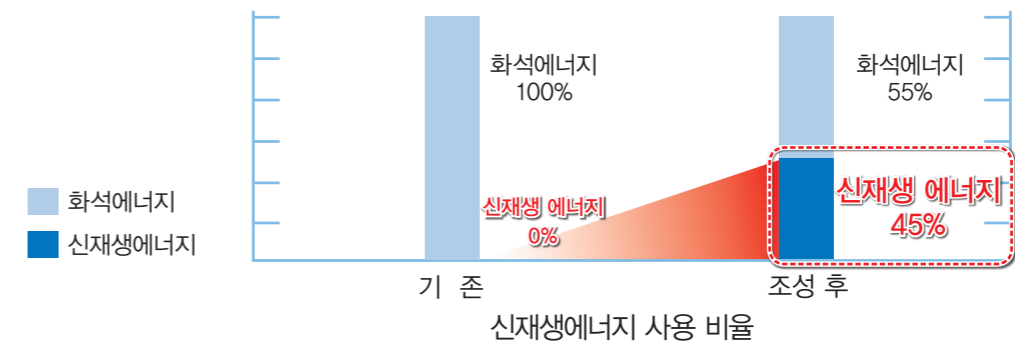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전경



녹색마을 센터 조감도

기대성과

- 녹색마을 조성전 연간 702.9 tGHG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주택 효율화 사업을 통해 약 163 tGHG가 감소되어 23.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조성 완료후 에너지자립도가 45%까지 향상됩니다.



"지난 8월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덕분에 한달간 가구당 평균 약 10만원 정도의 전기비가 절약되고 있고, 녹색마을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에 화합도 아주 잘 됩니다."



남봉리 마을 이장 : 박 남 길(56세)
주 소 : 완주군 고산면 남봉리 43-1번지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 등 녹색 산림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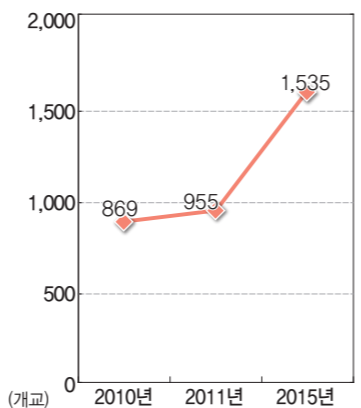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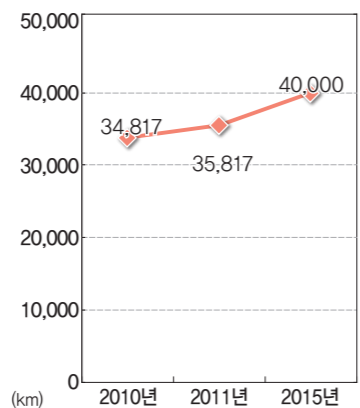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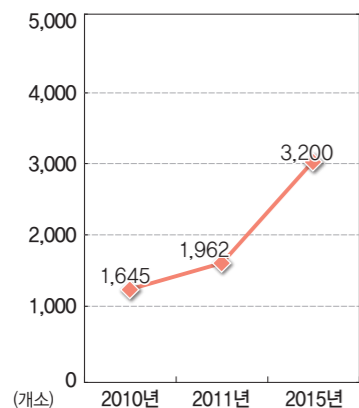
도심속의 녹색공간을 증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추진배경

-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색공간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 생활권 주변의 녹지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협약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의식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84.1%, 여론선도층의 91.3%가 향후 도시숲 조성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10, 한국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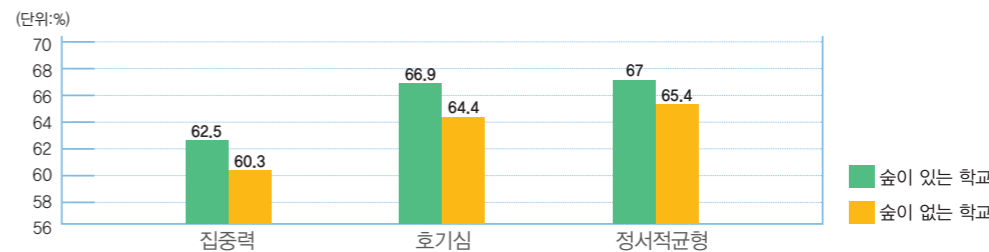
주요내용

- 3,200개('15)의 도시숲이 조성됩니다.
- 가로수가 40,000km('15)까지 확장됩니다.
- 1,535개교('15)에 학교숲이 만들어집니다.



성과사례

- '1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0㎡로 확충하여 WHO권고(9㎡/인) 수준을 달성합니다.
 - 선진국 도시 : 파리(13㎡), 뉴욕(23㎡), 런던(27㎡)
- 학교숲은 학생들의 집중력·정서함양 등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지의 역할을 합니다.



도시의 허파를 찾아서 (서울신문 2011년 6월 29일)

사철 푸른 매립지 '휴식 축으로' 녹색 입은 유적지 '시민 품으로'

도시민들이 숨쉬기 위해 서울 곳곳에 조성된 도시숲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단에 '사람꽃' 피었네 (서울신문 2011년 5월 30일)

도시민들이 숨쉬기 위해 서울 곳곳에 조성된 도시숲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의 허파를 찾아서 (서울신문 2011년 6월 27일)

도시민들이 숨쉬기 위해 서울 곳곳에 조성된 도시숲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대공원 - 공단에 '사람꽃' 피었네 (서울신문 2011년 5월 30일)

"서남공원과 삼호산을 연결하는 울산의 허파이자 울산에 도시숲 봄을 일컫는 주역으로서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였다."



탄소제로에 도전한다!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Ⅳ

- 1.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 2. 친환경 농산업 육성
- 3.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활성화
- 4. 어선 LED보급 확대
- 5.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저탄소 농식품 체인 구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선도한다.

추진배경

- 농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가 '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합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농식품 '20년까지 농림어업부문 5.2%, 음식료품부문 5.0%를 감축합니다.

주요내용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11~)
 - 일정기준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 농식품부는 농수축산 및 식품산업을 관장합니다.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2~)
 - 저탄소 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 확산을 위해 저탄소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배출량 대비 일정수준 이하로 온실 가스를 감축한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마크를 부여 합니다('12 : 10건 시범인증 실시).
- 농식품 탄소상쇄제도 ('12~)
 - 농식품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해 감축한 온실 가스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성과사례

○ 저탄소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농식품부문 온실가스를 35% 감축(흡수)합니다.

아시아경제

농업 온실가스 배출 35%까지 감축한다

정부가 2020년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5% 줄이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식품부는 2020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BAU 대비 35%로 정했다"며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 등 6개 분야에서 개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에서는 무경운 농법 도입과 같은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농업 온실가스배출 35%까지 감축 (아시아경제 2011년 5월 12일)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 등 6개 분야에서 개별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2020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BAU)보다 35% 줄이고,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은 기존 예상치보다 6% 높이기로 했다."

문화일보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보다 35% 줄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BAU)보다 35% 줄이고,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은 기존 예상치보다 6%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해외에 30만ha의 산림을 조성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배출량 35%줄여 (문화일보 2011년 5월 12일)

"2012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가 시행된다. 화학비료를 쓰지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축산물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 대응력' 강화방안 수립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내년 도입

지난해 여름 태풍 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배추 부패병이다. 고온과 많은 비로 배추가 녹아내리고 속이 차지 않는 현상이다. 이같은 고온과 배추의 주산지인 충청남도 서산에서 배추 부패병이 발생했다. 배추의 수확량이 20% 이상 줄었다. 9월 중 강수량도 364mm로 전년의 60%에 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국가 시장 인보를 보장하고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헤럴드 경제 2011년 5월 12일)

농업 온실가스 35% 감축 가속분노 자원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

다시 관계를 하는 풀림라대기만 활성화되도 온실가스의 감축분배 44%가량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자원을 기후변화 예측 능력도 강화되고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개

축산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조가 화두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설은 아리나 반추가축의 장내발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한국경제

2011년 05월 13일 금요일 A06면 경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축산물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만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농가에 지급하는 '탄소상쇄사업'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탄소크로스(TC)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보다 35% 줄이고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을 전망치보다 6% 늘리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행 (한국경제 2011년 5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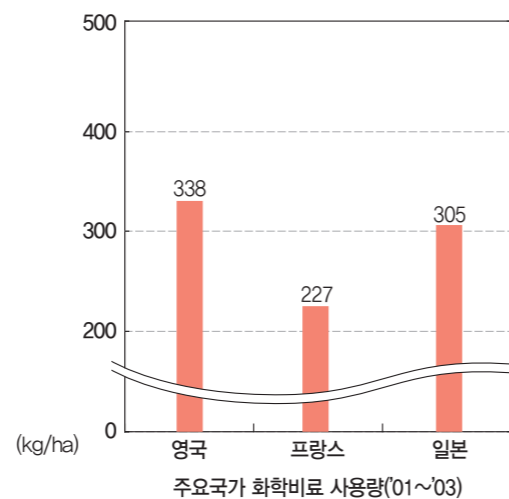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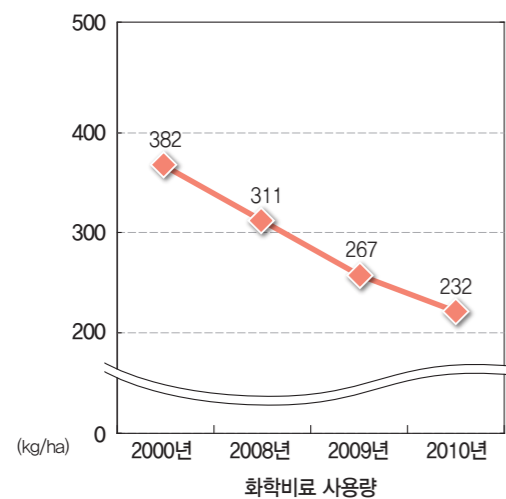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고, 이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된다."

친환경 농산업 육성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고 양분수지가 높아 농업의 환경부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농업에 의한 환경부담 완화와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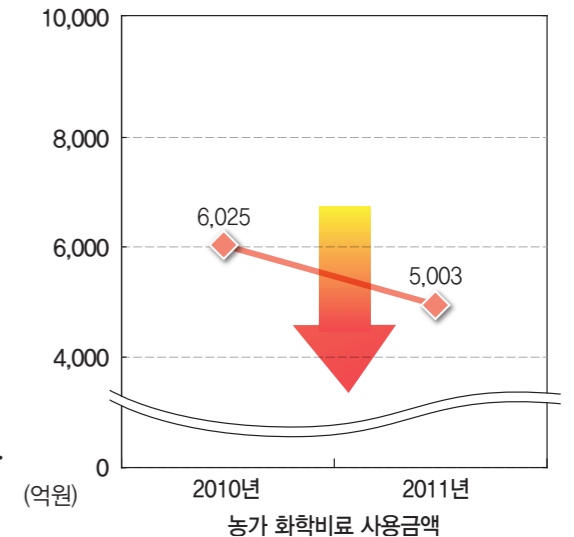
주요내용

-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를 지원하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합니다.
- '11년 이후 맞춤형비료를 전체 복합비료 대비 80%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 '11년에는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5개년 평균 ('06~'10) 대비 3% 감축(281kg/ha→273)합니다.



성과사례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에 따른 비료대 감소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 농가 화학비료 사용금액이 6,025억원('10)에서 5,003억원('11)으로 1,022억원(17%) 감소되었습니다.
 - '10~'12년 동안 '08년 화학비료 사용량의 30%를 감축하여, 농가 경영비 중 비료 지출비용의 25~27%를 절감 하였습니다.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CO₂ 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 화학비료 3% 감축시 67,688tCO₂의 CO₂배출이 감소됩니다.



*토양형 맞춤형 비료... 화학비료 구매 3년연속 감소

화학비료 구매(사용)량 현황 (단위 : 천톤, 천, t, ha)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용량	1,877	1,273	1,622	1,471	1,294	1,109
감소	354,178	244,325	334,536	301,655	262,318	235,028
인산	162,293	102,341	129,494	115,466	101,846	85,535
칼륨	295,941	131,053	167,212	152,933	135,434	101,973
소계	722,407	477,719	631,233	570,054	499,593	422,536
ha당 사용량	376	257	343	311	287	232
경지면적(천ha)	1,921,000	1,860,000	1,856,000	1,834,243	1,873,453	1,819,818

토양형 맞춤형 비료 (아시아투데이 2011년 3월 11일)

산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도개선 추진

기술지원단 및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등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201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 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2006년도에 3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도까지 34개소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제도개선 방안 중 주요내용은 우선 사업시행 과정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 및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도개선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1년 8월 8일)

"환경오염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개선 등으로 화학비료 구매(사용)량이 3년 연속 감소"

"맞춤형비료를 포함한 화학비료 가격 인하로 전체농가의 올해 화학비료 부담액은 전년보다 약 1022억원 감소할 것"

아주경제 올해 맞춤형 화학비료가 전년비..19.2%↓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올해 맞춤형비료 농가 평균 판매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9.2%(전체 화학비료는 16.6%) 인하됐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맞춤형비료를 포함한 화학비료 가격 인하로 전체농가의 올해 화학비료 부담액은 전년보다 약 1022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비료 가격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6%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맞춤형비료 등의 공급과 낮은 가격으로 하락해 농가 판매가격이 낮아졌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맞춤형비료의 농가 평균 판매가격은 1포(20kg)당 지난해 1만1072원에서 올해는 2122원 인하된 8950원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신청한 올해 맞춤형비료(30톤, 62만9000원)와 관효성비료(3만6000원)를 비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20kg 1포당 1100원의 보조한다고 전했다. 농가 판매가격에는 정부보조(20kg당 1100원)가 포함됐다.

맞춤형 공급 확산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정책 추진 (아주경제 2011년 1월 16일)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을 활성화하여 농어업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한다.

추진배경

- '07년 농어업용 에너지 소비량은 3,152천TOE로 국가전체의 1.8% 수준이며, 이중 석유류가 79.4%(2,503천TOE)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08년 농어업용 면세유류 사용량은 2,970천kl로 국가전체의 2.6% 수준이며, 농업용이 1,975천kl(66.5%), 어업용이 995천kl(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시설원에 전체 온실면적 53천ha 중 난방면적은 14천ha수준이며, 이중 유류가 난방용 에너지의 90%를 차지하여 유가상승에 따라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분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0.1% 미만 (국가 전체는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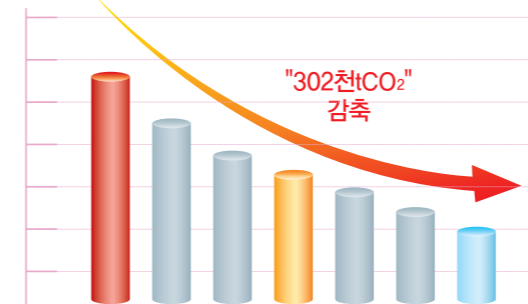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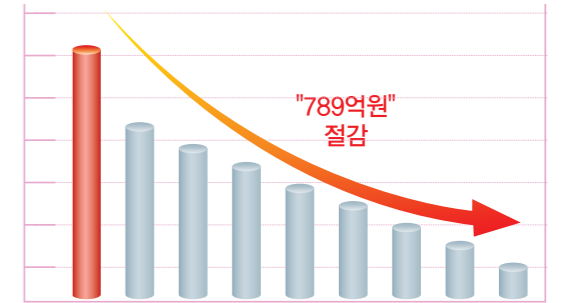
- 농어업분야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열 난방 설비, 목재 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1,160ha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온면적	대상 온실	면적	보급가능 에너지원
13,000ha	대규모·자동화 온실	1,300ha	지열·목재펠릿
	중소규모·저온작물 지열설치 곤란	5,200ha	목재펠릿
	전체 농가	13,000ha	에너지 절감시설

성과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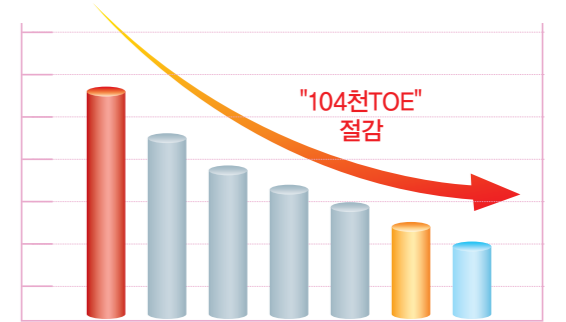
- '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시설 2,064ha를 보급하였습니다.
 - 지열 : 128ha
 - 목재펠릿난방기 : 174ha
 - 에너지 절감시설 : 1,762ha

- '11년에는 789억원의 난방비 및 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농가 연료비 절감율(유가 1배럴당 \$100 기준) : 에너지 절감시설 40%(576억원), 지열 73%(192억원), 목재펠릿 약 10%(18억원)



- '11년에는 온실가스 302천tCO₂이 감축 되었습니다.
 - 지열 : 128ha×222,24tCO₂/ha = 28,442tCO₂
 - 목재펠릿난방기 : 174ha×311,2tCO₂/ha = 54,148tCO₂
 - 에너지 절감시설 : 1,762ha×124,5tCO₂/ha = 219,369tCO₂

- '11년에는 에너지 104천TOE가 절감 되었습니다.
 - 지열 : 128ha×65,6TOE/ha = 8,397TOE
 - 목재펠릿난방기 : 174ha×108,6TOE/ha = 18,907TOE
 - 에너지절감시설 : 1,762ha×43,44TOE/ha = 76,541TOE



어선 LED 보급 확대

어선의 유류비를 절감하여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끈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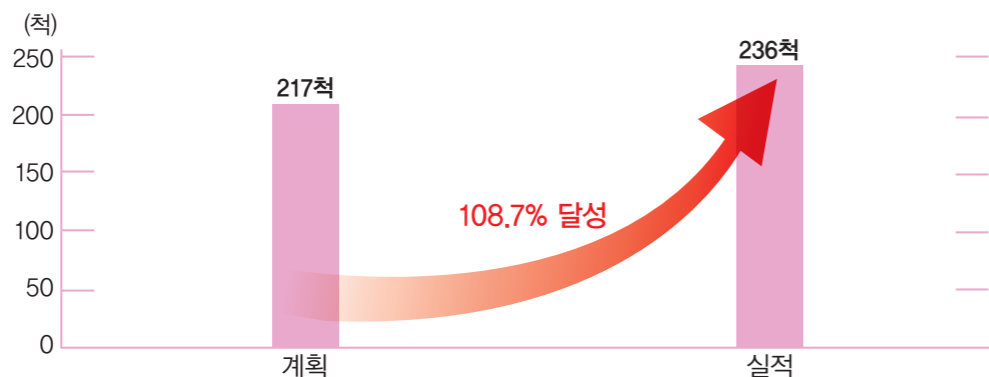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를 보급하여 친환경 저비용 어업구조로 전환하고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합니다.
 - 조업시 사용하는 어선의 집어등(燈), 작업등(燈)을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燈)으로 교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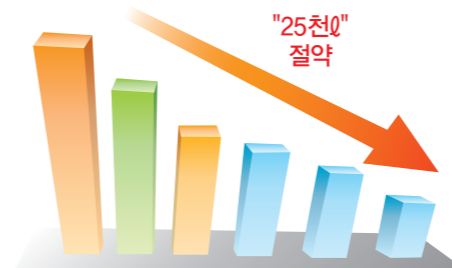
성과사례

- 단기적으로는 유류비 절감을 통해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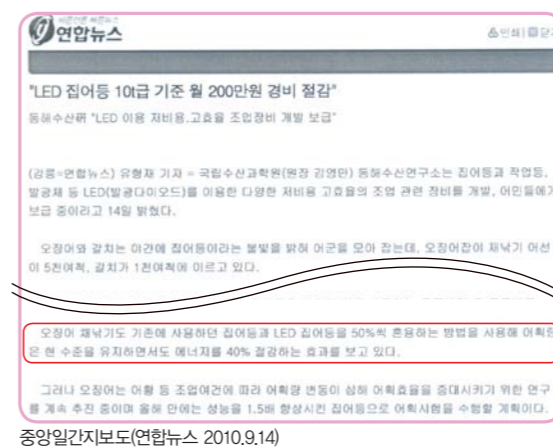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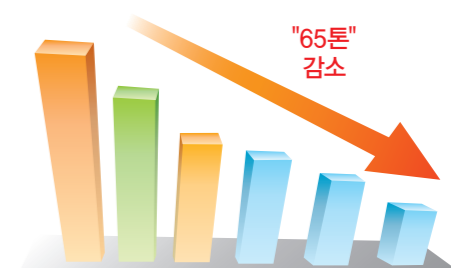
11년에는 어선 LED 보급 계획대비 108.7%(217척 → 236척)를 달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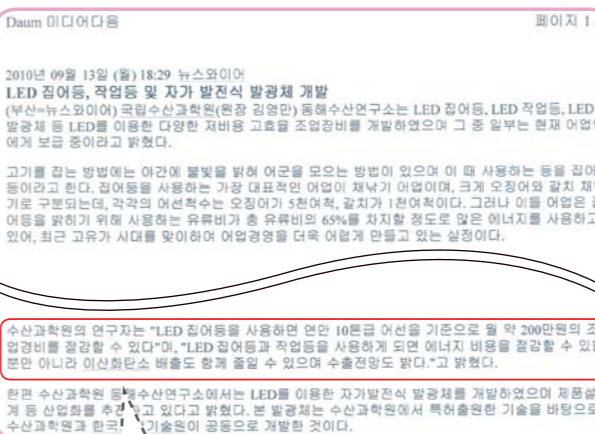
갈치 채낚기 어선의 경우, 1척당 연간 약 25천ℓ의 유류가 절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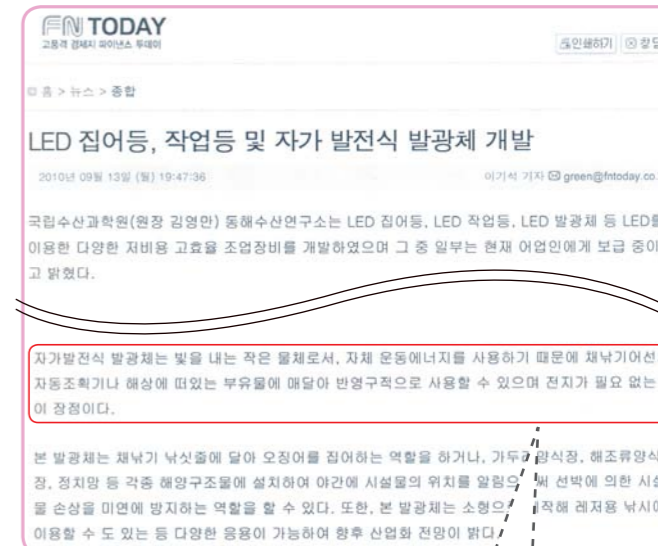
갈치 채낚기 어선의 경우, 1척당 연간 약 65톤의 CO₂ 발생이 감소됩니다.



"오징어 채낚기도 기존에 사용하던 집어등과 LED 집어등을 50%씩 혼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어획"



"LED 집어등을 사용하면 연간 10톤급 어선을 기준으로 월 약 200만원의 조업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LED 집어등과 작업등을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함께 줄일 수 있으며 수출전망도 밝다."



"자가발전식 발광체는 빛을 내는 작은 물체로서, 자체 운동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채낚기어선의 자동조획기나 해상에 떠있는 부유물에 매달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지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

산림자원 조성·육성으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나무의 성장량 증대로 가치를 높인다.

추진배경

-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유엔 IPCC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조림 및 산림경영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 '07년 온실가스 620백만tCO₂ 중 41백만tCO₂(6.6%)을 산림에서 흡수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중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촌 연료비 부담 경감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탄소흡수 기능이 저하된 산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하거나 신규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희토지에 신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리기다소나무림 등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조림 : ('11) 20,732ha → ('15) 21,000ha
 - 숲가꾸기 : ('11) 266,000ha → ('15) 261,000ha
 - 가정용 등 소규모 펠릿 난방기 보급 : ('11) 4천대 → ('15) 2천대
 - 국내생산 펠릿공급 : ('11) 2만톤 → ('15) 10만톤



성과사례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나무의 성장량 및 공익적 가치가 증대 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숲가꾸기로 '98년 이전보다 임목축적량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 산림의 건강성이 증진되어 공익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숲가꾸기를 통하여 건강한 산림 조성 및 탄소흡수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한 지역의 나무는 직경과 뿌리생장이 촉진되고, 잘 발달된 나무뿌리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를 발휘하여 산림토양의 쓸림현상을 방지"

新報日報

【포항 > 뉴스 > 경북 > 포항·경북】

"재해 예방, 건강한 숲가꾸기가 답이다"
서부산림청, 재해에 강한 숲 가꾸기에 총력

2010년 7월 15일 (목) 16:11 기자: 남달/남달기자@gmail.com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문병환)은 장마철 산사태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수해에 강한 건강한 숲을 만들고 동시에 재해위험지역에서는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진하여 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한 지역의 나무는 직경과 뿌리생장이 촉진되고, 잘 발달된 나무뿌리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를 발휘하여 산림토양의 쓸림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말쑥한 숲을 적절하게 해아주면 산질 내 침투의 후속 침투를 줄이게 되고 토양 내 수분 보유 능력이 향상되어 강우 시 산질오염 유실을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잘 가꾸어진 숲은 산질오염 입자를 사외에 공진하여 많이 제거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건강해 밀치기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집중호우로 흉수침해가 컸던 양천구 지역 산지에서는 유류 및 농약 등 유해물질 1,000톤 유류 중 99.4%(1,000톤)는 토양층의 침투로 뿌리 재 침투된 나무였고, 숲 가꾸기 사업에 의한 간 벌목은 0.6%에 불과했다.

"재해예방, 건강한 숲 가꾸기가 답이다"
(동아일보 2010년 7월 15일)

- 원유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0년에는 약 70.4억원,'15년까지는 약 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재난의 서곡, 검은 진주의 종말
(KBS 환경스페셜)

"목재펠릿은 목재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숲 가꾸기에서 나온 잡목 등을 톱밥으로 파쇄한 후 압축해 만든 청정연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있다."

목재펠릿 난방비 사용액
자료: 산림청

363만 원 → 233만 원 (36% 절감)

등유

「나무」 3부작, 과학카페 「나무의 재발견」
(KBS 네트워크 특선)

섹션내일신문

2011-04-12 오전 11:00:00

펠릿보일러 바람 부는 경북 상주-영동 경계 "한농마을"

“펠릿보일러 연하는 데를 만들어주세요”

117가구가 보일러 설치 - 연료비도 줄이고 환경도 지키고 '1억2천'

“펠릿보일러 직접 사업, 우리 마을을 위해 실시하는 것 같아요.” 경북 영동 상주시 한농마을 이장님(김재훈)은 펠릿보일러 예산준비다. 한농마을은 마을 전체가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최근 최대 펠릿보일러 교체가 한창이다. 전체 361가구 중 361가구가 이미 지난해 교체 또는 석유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바꿨다. 올해도 70가구가 추가로 펠릿보일러를 설치한다. 그만큼 마을 전체의 30%가 넘는 117가구가 펠릿보일러를 사용하게 된다.

마을을 30%가 펠릿보일러 설치 - 목재펠릿은 목재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숲 가꾸기에서 나온 잡목을 톱밥으로 파쇄한 후 압축해 만든 청정 연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한농마을은 마을 전체가 펠릿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경북 상주시와 영동시 경계에 위치해 있다. 모두 6세 마을 361가구가 모여 살고 있으며, 인구는 660여명이나 된다.

이 마을은 그동안 가스, 석유, 화석 등 다양한 연료를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했다. 중앙집중식 화력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도 40여 가구가 넘는다. 개별적으로 나무를 팔아먹고 쓰는 화력보일러를 사용하는 농가도 상당수다.

장부가 펠릿보일러 보급 자금을 내면서 상주시에서 배정된 53대 중 36대가 이 마을에 설치됐다. 환경부에 배정된 3대 역시 모두 이 마을에서 가져왔다. 올해도 상주시에서 배정된 60대 중 59대를, 환경부에 배정된 3대 중 20대를 가져왔다.

이 마을에 사는 이재훈(45)씨도 지난해 펠릿보일러를 설치했다. 그 전에는 화력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번갈아 사용했다. 20만 남짓한 단독주택의 한 달 연료비가 3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펠릿보일러로 바꾼 뒤에는 연료비 지출이 한 달 18만~2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배는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면 석유,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어렵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지금도 펠릿보일러 사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안쓰는 마을 만들어요 (내일신문 2011년 4월 12일)

"나무를 이용해 난방을 할 경우 객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짱' 맛이 좋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요즘에는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방이 먼저 예약된다."

중도일보

2010년 7월 30일

나무 난방은 '짱' 맛이 달라 기쁨보다 연료절감도 주목

펠릿보일러 전도시 유용할 전산용량량 확충

기사입력: 2010-07-30 14:03 [오산4기차] | 지역: 경북 | 2010-07-30 | 연면적: 10만

“펠릿보일러 효과 좋습니다.”

대부분 자택에 자리잡고 있는 간접직업인 이씨는 지난 300여평의 펠릿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다. 전체 20개 객실 중에 4개에 불과하지만 펠릿 보일러를 이용한 방은 기쁨 보다는 저렴한 방보다 인기가 높다.

이씨는 “나무를 이용해 난방을 할 경우 객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짱' 맛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요즘에는 펠릿 보일러를 이용하는 방이 먼저 예약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옛 선조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병을 소독하는 등 치료 목적으로 활용된 것 을 예로 들면서 나무를 이용해 연료를 만든 펠릿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무 난방은 '짱' 맛이 달라요 (중도일보 2010년 7월 30일)



국가신성장동력 농식품분야에서 찾는다!



1.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
2. 식물공장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3. 종자·생명산업 육성 기반 마련
4. 녹색성장의 핵심, 녹색 R&D 활성화 추진



식물공장 자동화 기술 개발 추진

첨단 융복합 기술이 반영된 식물공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추진배경

-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농업을 가능케하는 환경제어형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수평개념의 재배농업에서 생산성 및 토지 이용효율이 높은 수직농장시스템으로 식물 재배농법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노지재배(70) → 시설재배(90) → 수평형 식물공장(04) → 수직형 식물공장(12) → 빌딩농장(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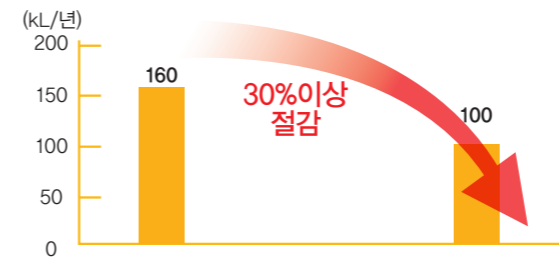
주요내용

- BINT를 융복합하여 녹색성장과 수출농업을 이끌어 갈 '미래형 녹색도시 식물공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식물생산공장 자동화 환경관리 시스템 개발, 식물생산 공장 모델 및 재배관리 매뉴얼 개발, 요소기술 자동화, 식물공장 상용화 복합환경 제어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과사례

- 기존의 토지기반 온실재배에 비해 고집적화를 달성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이용 대비 CO₂ 발생량이 30%이상 감소되었습니다(시설원예용 유류 이용량 절감 : 160 → 100만 kL/년).



"LED는 식물성장에 가장 적합한 파장을 낼수있고, 또 형광등보다 에너지가 적게드는 장점이 있다."

농진청 빌딩형 '식물공장 연구동' (mk 뉴스 2011.3.23)

- 식물공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는 증발산시스템 개발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해져 노지재배 대비 75% 절감됩니다.
- 화학농약, 비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양액 및 무농약 재배로 환경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물과 양분을 주는 것도 자동화 돼 있고,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 황사나 방사능 오염같은 외부 환경악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추 한 포기에 최첨단 기술이 ... 식물공장 첫 선

2011-03-24 04:19

[인터뷰:김유호, 농진청 식물공장 연구실장]
"재배작물에 기능성물질을 발현시킨다면가 아니면 고부가가치 성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경제성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물과 양분을 주는 것도 자동화 돼 있고, 실내에서 키우다 보니 황사나 방사능 오염같은 외부 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추 한 포기에 최첨단 기술이..식물공장 첫 선 (YTN 2011.3.23)

종합 농진청 빌딩형 '식물공장 연구동' 문 열어

기사입력 2011.03.23 10:08:45 **mk 뉴스**

현재 식물공장 연구동에서는 로메인, 청상추, 적숙면, 적근대, 신선초, 파슬리, 치커리, 청경채 등의 양채류가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은 이날 문을 연 식물공장 연구동을 바탕으로 식물공장의 작업환경 자동화 및 로봇화 요소기술 개발, 태양광이동 수직형 공장생산시스템 확립, 인공광 이용 공장생산 재배조건 구명, 식물공장 모델 및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진청 생산자동화기계과 최규홍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이번 빌딩형 및 수직형 식물공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식물공장 연구기술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차세대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진청 빌딩형 '식물공장 연구동' (mk 뉴스 2011.3.23)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이번 빌딩형 및 수직형 식물공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식물공장 연구기술방향의 비전을 제시하고 차세대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종자·생명산업 육성 기반 마련

글로벌 종자업체를 육성하여 **신품종 육성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

추진배경

- 지식정보, 금융·기술 자본주의에서 생명력을 중시하는 생명자본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생명자원 보유국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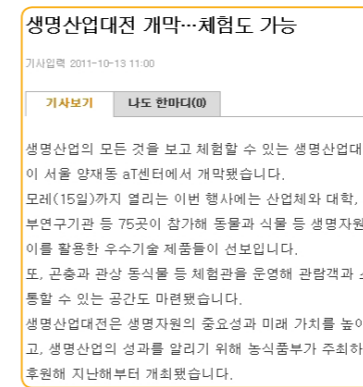
- 종자 산업은 기술·자본이 고도로 집약된 산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주요내용

- 종자산업법 분리 제·개정을 통해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방사선육종기반 구축 등 민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R&D 투자확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신품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00만 달러 수준의 국가전략형 수출종자를 20개 이상 개발할 계획입니다.
- 유전자 재조합기술과 형질전환 동물 생산기술 결합을 통해 신약·장기 및 신기능성 물질을 개발합니다.

성과사례

-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대전 개막...체험도 가능 (MBN경제 2011.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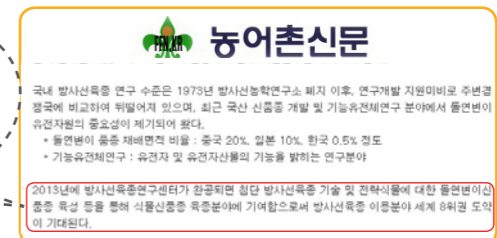


"농식품부는 농림수산 생명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한 기술 및 전시·홍보해 생명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를 알린다는 방침"

제 2회 생명산업대전 개최 (아주경제 2011. 10. 12)

- 방사선 육종 선진국가에 진입합니다.

"2013년에 방사선육종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방사선 육종 이용분야 세계 8위권 도약이 기대"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착공 (농어촌신문 2011.7.6)

- Golden seed 프로젝트로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합니다.



금보다 비싼 종자 '골든씨드' (국민일보 2011년 3월 14일)

"정부가 2012년까지 예산 8140억원을 투자해 금보다 더 비싼 글로벌 수출 전략 품종 20개 이상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골든 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에 나섰다."

- 생명산업 R&D로 신성장동력이 창출됩니다.



이종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복제 미니돼지 '자노' 생산 (KBS 언론홍보)

"녹색형광단백질 대신 형질전환 닭을 생산한다면 사람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계란이 생산될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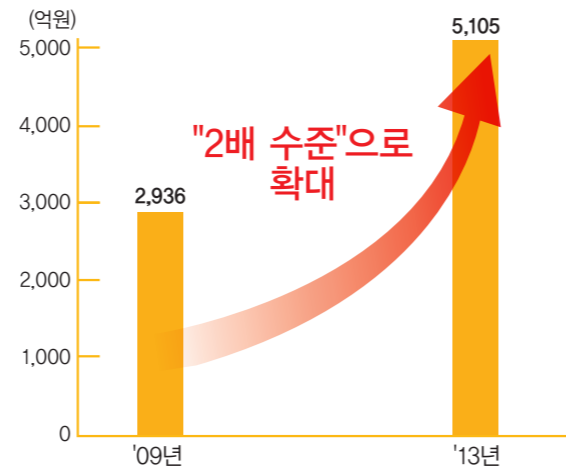
난관 특이적 GFP 형질전환 닭 개발

녹색성장의 핵심, 녹색R&D 활성화 추진

농식품 녹색R&D 투자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확충한다.

주요내용

- 농림수산물 R&D 중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재정투자가 '13년까지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녹색(Green)성장 실현, 생명(Life) 산업 육성, 과학 기술(Technology)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 농림수산물 녹색R&D 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단체·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녹색인증제도 도입으로 녹색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09년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저리자금 지원, 신용보증 확대, 수출·보험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성과사례

- 바이오매스 에너지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돼지기름, 바이오연료로 재탄생!(2010. 6. 16)



바이오 연료 재탄생 (KBS)



바이오 연료로 재탄생 (SBS)

■ "높이 4m 역새, 고효율 대체 에너지로 주목" (2010. 12. 19)



KBS TV 9시 뉴스

- 기후 변화 적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경역 국토 30m 간격 기후 볼 수 있는 '전자기후도' 개발

개발된 고해상도 디지털 농업기후도(이하 전자기후도)는 일 최고·최저기온, 적산일사량, 강수량 등의 기후 정보를 30년 평년의 월별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기후지수 분포도를 30m 단위 해상도로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자기후도는 한번 심으면 10년 이상 교체할 수 없는 과수 등 영년생 작목의 재배적지 선택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작목을 대체하거나 품종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범지역인 충남 예산군과 국립공원 지리산 지역의 경우 주작물에 대해 동해위험도, 휴면해제일, 개화일, 품질지수, 병충해 발생 등 영농활용정보가 필요하므로 제공돼 바로 영농계획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 최고·최저기온, 적산일사량, 강수량 등의 기후정보를 30년 평년의 월별로 제공하고 농업기후지수 분포도를 30m 단위 해상도로 제공"

- G< 포럼이 출범 되었습니다.

"G< 포럼은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인 녹색(Green)성장을 실현 생명(Lif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Technology)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

농림수산물과학기술포럼 'G·K 포럼' 출범

"녹색성장 실현 생명산업 육성 과학기술 포럼"

공동대표에 한문위·김재수

농림수산물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실의 구인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는 설립 2주년을 맞아 'Green & Life Technology (G<)' 포럼을 출범하고 지난달 말 서울 소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출범 첫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G< 포럼 행사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에서 후원했으며,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G< 포럼은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인 녹색(Green)성장을 실현하고, 생명(Lif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Technology)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화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겸 과 전시행사장을 돌아보고 있는 '농업 R&D 예산의 배분 조정 방향' △이무하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원장의 '농업 : 새로운 지평, 새로운 희망' △김용환 신진타코리아 대표의 '글로벌 농산업 측면에서 본 농업의 새로운 아젠다' △구희진 대신증권 전무의 '농림수산물기술과 IT 컨버전스'에 따른 '자본시장의 역할' 등 특별강연으로 진행했다.

특히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G< 포럼이 농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 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절제적인 포럼을 통해 타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구상해, 시 등 국가재난상황에서 신속히 과학적 논거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두뇌집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reen & life technology forum (한국농어민신문 2011.7.7)

- 농식품 녹색 인증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시작 First-Class 경제신문

농림수산물 분야 녹색인증제 대상 확대

2011-05-16 11:24:17

농림수산물 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부문이 추가돼 인증대상이 모두 85개로 확대된다.

또 녹색사업 인증대상도 지열에너지, 고효율화 공정설비, 방송통신, 콘텐츠보급 등 10개가 새로 포함돼 모두 105개로 늘어난다.

농림수산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녹색기술 인증 시 적용하는 평가항목을 일부 고쳐 시장성(30점)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기술우수성(40→60점) 및 녹색성(30→40점)의 배점을 올리고, 녹색사업 인증 시 평가항목 중 사업타당성(20점)을 정책집합성으로 대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인증대상에 대한 기술수준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기술수준 중 일부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해 필요시 그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림수산물 분야 녹색인증제 대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2011.5.16)

"농림수산물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부문이 추가돼 인증대상이 85개로 확대"



글로벌 그린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한민국의 농림수산물

VI

1. 농업 온실가스 국제 연구연맹(GRA) 가입
2.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3. 제10차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 성공적 개최





농업온실가스국제연구연맹(GRA) 가입 (2011. 6. 24)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주요국가들과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GRA란?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reenhouse Gases)

- 지속적인 식량생산 추구하고 농업 온실가스 감축 문제해결을 위해 회원국간 연구협력(R&D)과 투자 확대를 논의하는 국제 협력체입니다.

가입배경

- 온실가스 감축과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농업분야도 국제적인 인적·물적 연구협력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연구 및 기술수준은 GRA에 참여하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EU, 미국, 일본 등에 비해 70%수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고려하였습니다.



성과사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격을 제고 하였습니다.



UN총회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우리나라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해 개도국의 농업생산을 향상하고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해외농업진출 거점을 확보한다.

KOPIA란?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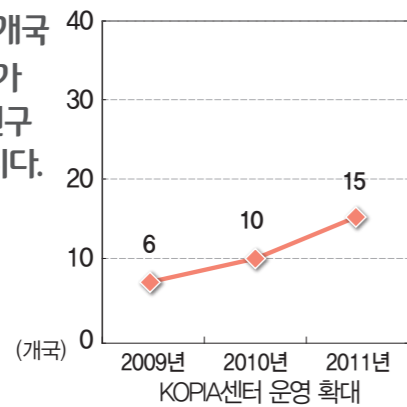
- 세계농업과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원조 사업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을 요청하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지원국의 젊은이들에게 연수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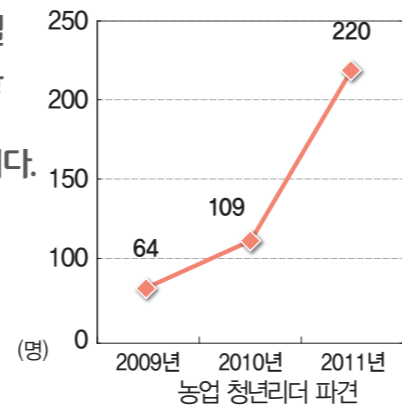
- 국격 및 자원외교에 부응하는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농업 기술 리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원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2015년까지 30개국에 KOPIA 센터가 설치되고 공동연구 사업이 확대됩니다.



- 미래대비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청년 리더를 파견합니다.



성과사례

- 단기적으로는 협력국가에 맞춤형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케냐 탈곡기 전수 (MBC, YTN 등 2009. 12)



브라질 농업인턴 활동 (2010.3)

- 중장기적으로는 유용유전자원 도입 및 해외진출 농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한 해외 농업진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OPIA 케냐 센터-자전거 탈곡기 (YTN 2011.8)



"농진청은 12일 캄보디아에 해외 농업기술개발(KOPIA) 센터를 열었다. KOPIA는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해 개도국의 농업생산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지구촌 농업 살리기 (동아일보 2010년 4월 26일)



케냐 탈곡기 전수 (MBC, YTN 등 2009. 12)



케냐 탈곡기 전수 (MBC, YTN 등 2009. 12)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의 성공적 개최

사막화 방지에 관한 국제적 아젠다에 리더십을 발휘한다.

UNCCD란?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국제적 노력을 통한 사막화 방지와 심각한 한발·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치산녹화 성공국으로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사막화 및 산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국가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토녹화 성공 역사와 중국·몽골의 사막화 방지 활동 노력에 힘입어 아시아 최초로 총회가 개최됩니다.

주요내용

- 2011년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간/장소 : 2011.10.10~10.21(2주간),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 194개국 약 3,000명(일반 관람객 : 약 8~10만명)
-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로서, 우리나라 치산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세계 각국에 전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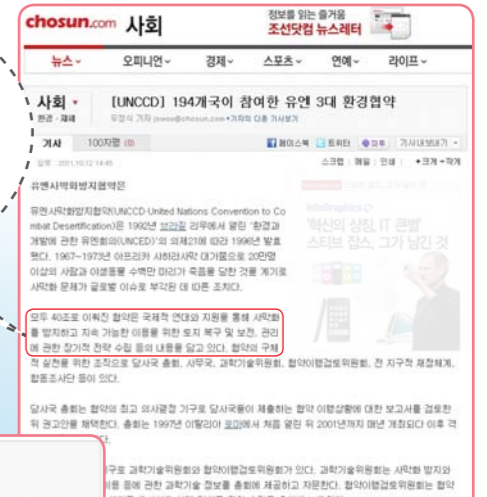
기대성과

- 사막화 방지 등 국제사회 아젠다에 대한 리더십 발휘와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國格)에 걸맞은 역할 수행으로 녹색성장을 세계에 확산하였습니다.
- 유엔 3대 환경협약 총회의 국내 유치로 생산 및 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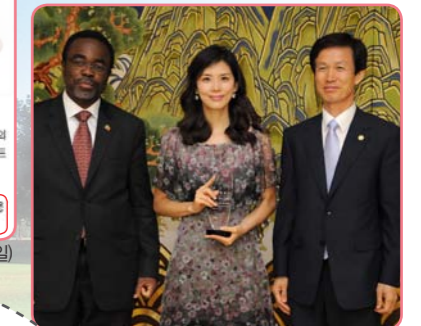
몽골나무심기행사

"모두 40조로 이뤄진 협약은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통해 사막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지 복구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장기적 전략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3대 협약 (조선사회 2011년 10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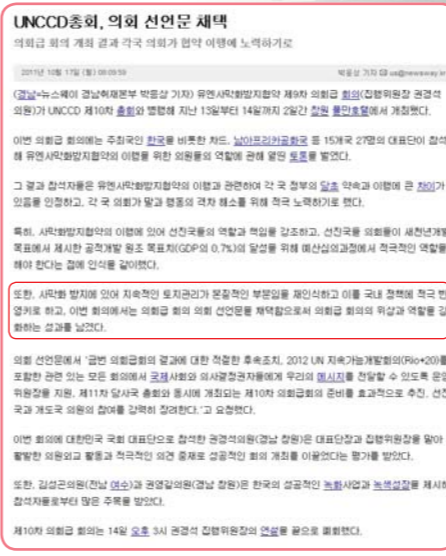
"바이오시멘트 연구를 통해 사막화와 황사를 줄일 수 있는 상용기술과 현장 적용방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총회 홍보대사 선정

UN 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포럼 개최 (조선BZ 2011년 10월 17일)

"사막화 방지에 있어 지속적인 토지관리가 본질적인 부분임을 재인식하고 이를 국내 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는 의회급 회의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의회급 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성과를 남겼다."



UNCCD총회, 의회 선언문 채택 (뉴스웨이 2011년 10월 11일)



대학생 홍보대사단 발대식

